



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Q&A

2016. 1. 27.

금융위원회
금융감독원

순서

1.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대책 마련 취지는? 1
2.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배치되지 않는지? 2
3. 은행 자원의 중금리 대출을 구축할 우려? 3
4. 정책서민금융과 역할이 중복되지 않는지? 4
5. 보증보험을 연계하는 이유는? 5
6. 서울보증보험 제공 대상에 저축은행 포함 이유? 6
7. 서울보증보험 연계 대출은 1회성 대책인지? 7
8. 서울보증보험의 손실 우려는 없는지? 8
9. 1조원 규모 공급 실행 방안은? 9
10. 보증보험의 상품구조와 구체적 보험료율은? 10
11. 위비 모바일 대출과의 차이점은? 11

1.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취지는?

- 최근 중금리 대출 상품 출시 증가에도, 여전히 금리단층*이 있는 등 시장의 실질적 활성화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

*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(15.9월말)
: 은행 4.4%, 상호금융 4.6% / 여전 18.1%, 저축은행 25.0%, 대부 30.2%

① 공급규모 측면에서 중간 수준의 신용도와 리스크를 가진 금융 수요자의 자금수요 충족이 미흡

* 금리대별 가계신용대출 비중(15.9월말)
: (~5%) 42.0%, (5~10%) 24.9%, (10~15%) 5.1%, (15~20%) 14.9%

② 최근 출시되는 중금리 상품의 경우에도 신용도 선별능력의 제약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중금리 공급 확대에는 미흡

* (은행권) 대출한도가 비교적 낮고, 고신용자(1~3등급) 대출 비중이 높음
(저축은행권) 중금리 상품임에도 대출금리가 20%대 전후로 높은 편

- 이에 따라, 정부는 최근의 시장 형성 추세를 가속화해 중금리 대출 시장이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강구

① 인터넷전문은행 등 여러 플레이어가 시장 경쟁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급경로를 다양화

② 정보 비대칭 완화를 위한 신용평가 인프라 개선 노력도 병행

- 궁극적으로, 시장 기능에 따라 차주별 신용도 및 리스크를 반영한 합리적인 신용대출 금리와 10%대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이 형성되도록 유도

2.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현 상황에 배치 되지 않는지?

-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은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정보 및 평가 능력 부족에 따라,

- 신용도에 따른 적정 대출 금리가 형성되지 못함으로써 일종의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시장으로 볼 수 있음

- 금번 대책은 정보 비대칭 완화를 통해 시장실패를 보완하고, 시장 자율의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, 가계부채 확대에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

- 중·저 신용자들이 10%대 시장이 부재하여 20%대 후반의 고금리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음

- 또한, 금융회사의 고객선별 능력을 제고하여 차주의 리스크에 상응하는 대출실행 원칙을 견지할 예정

- 오히려,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

① 중금리 신용대출이 확대되면 중신용자의 이자부담이 경감

② 고금리로 대출받은 既대출자에게도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추가적 기회를 제공

3. 보증보험 연계상품 등이 은행의 자율적인 중금리 신용 대출을 구축할 우려는?

-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대출 상품은 정책금융상품이 아니라, 시장원리에 따른 상업성 상품
 - 기존의 은행권 중금리 신용대출에 비해 일방적 우위를 가진 상품이 아니며,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성 지원 제도도 아님
 - 수익 및 리스크 관리 등을 감안하여 은행이 중금리 대출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경쟁적인 여러 대안 중의 하나
 - 중금리 시장형성 자체가 미흡한 상황에서, 보증보험 연계 상품이 기존 시장을 구축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
 - 오히려, 다양한 공급경로를 확충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확대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
- ⇒ 중금리 시장을 새로이 형성하기 위한 금융대안
- 또한, 주요 이용자 및 대출금리 측면에서 기존의 상품들과 상호 충돌하기 보다는 보완하는 관계에 가깝다고 판단

- (기존 은행 자율 상품) 고신용자 중심 5~10% 미만 금리
주로 500만원~1천만원 한도 이내
 - (보증보험 연계 상품*) 4~7등급 중심 10% 내외 금리
2천만원 한도 등 예상
- * 구체적인 금리, 보험료 등은 은행과 보증보험이 자율적으로 협의 예정

4. 중금리 대출과 정책서민금융간 역할이 중복되지 않는지?

* 정책서민금융 : 미소금융, 햇살론, 새희망홀씨 등

- 중·저 신용자의 금융접근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시,
 - 정책서민금융 확대 뿐만 아니라 시장 기능에 따른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
- 한편, 중금리 대출은 정책서민금융과 정책목적, 이용자 등이 상이해 역할이 중복되는 것도 아님

< 정책서민금융 >

- ① 정책적 배려에 따라, ② 저소득·저신용자(6~10등급)에게
- ③ 미소금융·신복위 등 정책서민금융기관이 ④ 시장금리보다 낮은 조건으로 대출

< 중금리 대출 >

- ① 상업적 원리에 따라 ② 지원대상이 제한이 없고, 다만 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신용이 양호한 중신용자(4~7등급) 중심으로 운영 예상
 - ③ 또한, 민간금융회사간 상호 협의하는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
 - ④ 차주의 리스크를 반영한 적정금리 대출
- 특히,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별도의 재원(휴면예금, 복권기금 출연금 등) 조성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나,
 - 중금리 대출은 추가적 재원 조성 없이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적정금리 대출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

5. 보증보험을 연계하는 이유는?

- 중금리 시장은 정보 비대칭*에 따라 대출자 선별이 어렵고, 손실 리스크도 있어 개별 금융회사 단독의 시장 진입에 애로

* 중금리 대출 이용자의 연체·상환이력 등의 데이터 축적이 부족

- 이에 따라, 보증보험이 금융회사 손실 리스크를 분담해 초기 시장조성(market building)을 위한 “징검다리” 역할을 수행

① 금융회사에게는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에서의 참여 및 공급확대 유인을 제공

② 금융회사와 보증보험사 양자에게 중신용자의 상환·연체 등의 데이터 축적으로 신용평가 역량을 배양할 기회

③ 보증보험도 적절한 보험료 산출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보증보험 본연의 기능을 확대

- 특히, 보증보험의 입장에서는 시범적으로 既운영 중인 보증보험 연계 대출상품*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,

* 우리은행-서울보증보험 연계 위비모바일대출('15.5월~, 금리 5.86~9.66%)

-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중금리 대출 상품을 업권 전반에 확대·공유해 나아가자 하는 취지

6. 보증보험 제공 대상에 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도 포함한 이유는?

- 중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된 영업 기반으로 볼 수 있음

- (은행) 평판 리스크 등을 고려시 대출이 우량 신용자 중심으로 신청·실행되어 다양한 유형의 중신용자 포괄이 어려움

* '15.8월말 은행 중금리 상품의 신용등급별 대출잔액 비중(21개 상품 평균)
: (1~3등급) 41% (4~7등급) 56% (8~10등급) 3%

- (저축은행) 은행대출 거절자, 급히 자금이 필요한 중신용자,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대부업을 이용하거나 20% 이상의 높은 금리를 이용 중인 중신용자 등을 흡수 가능

- 그러나, 그간 저축은행은 신용평가 능력 부족 등으로 중금리 대출 공급이 미흡했던 면이 있고,

-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하는 경향

- 이에 따라, 우선 보증보험 연계를 통해 저축은행이 중금리 대출 공급역량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되,

-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 스스로 중금리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도약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

7. 서울보증보험 연계 대출은 1회성 대책인지?

- 금번 방안은 중금리 대출 시장의 형성·확산을 가속화하고, 시장 기능에 따라 다양한 공급채널을 확충하고자 하는 취지
 - 중금리 대출 시장의 활성화는 중·저 신용자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·추진되어온 과제
- 또한,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업권이 논의·발전시켜 온 것임
 - ①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대출 상품은 정책금융상품이 아니라, 시장원리에 따른 상업성 상품
 - * 기존 상품보다 일방적 우위를 갖거나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성 지원 상품이 아니라, 수익·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가 선택 가능한 경쟁적 대안 중 하나
 - ② 서울보증보험은 유사한 보증상품*을 운영 중
 - * 우리은행-서울보증보험 연계 위비모바일대출('15.5월~, 금리 5.86~9.66%)
- ⇒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중금리 대출 상품을 업권 전반에 확대·공유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
- ③ 1회성으로 대출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님
- 향후 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주요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경로의 하나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함

8. 서울보증보험의 손실 우려는 없는지?

- 중금리 대출 이용자의 연체·상환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, 과도한 공급 확대시 손실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나,
 - ① 서울보증보험과 금융회사는 다양한 리스크 관리방안*을 통해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고,
 - * ① 부실률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시 금융회사가 일정부분 손실 분담
 - ② 상품 출시 후 연체율 등 현황 지속 모니터링 및 승인요건 미세조정
 - ② 서울보증보험 자체적으로 '중신용자 전용 신용평가모형'을 구축하여 신용평가의 정확도를 지속 개선할 예정
- 또한, 서울보증보험은 유사한 보증상품*을 제공·운영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,
 - * 우리은행-서울보증보험 연계 위비모바일대출('15.5월~, 금리 5.86~9.66%)
- 이번 상품 운영을 통해 자체 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
- 상품 출시 이후에도 보증보험사와 참여 금융회사가 대출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하여 금리·보험료·손실분담 비율 등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계획
 - 이를 통해 적정 수준의 금리와 손실 분담 등에 관한 균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
- 한편, 서울보증보험은 사실상 유일한 보증보험 공급자로, 신용 시장의 리스크 평가체계 개선 역할도 적극 담당하면서,
 - 이를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의 기회로도 활용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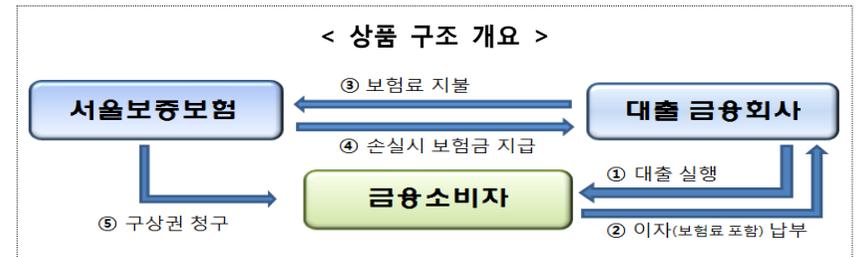
9. 1조원 규모 대출공급 실행방안은?

- 금번 보증보험 상품 공급은 **미비한 중금리 대출 시장을 조성** (market building)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임
- 참여 **금융회사와 보증보험사**는,
 - ① **대출조건, 손실분담 구조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상품을 출시**하고,
 - ② **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대출조건 등을 수시로 탄력 조정해 나갈 예정**

* (예) 연체율·부실률 등의 수준을 감안하여, 대출 승인요건을 지속 수정·보완
- **부실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대출이 활성화되는 경우**,
 - **금융회사와 서울보증보험간 추가 공급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임**

10. 보증보험의 상품구조와 구체적인 보험료율 등은?

- 기본적인 구조는 **서울보증보험사가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**
- **서울보증보험이 금융회사로부터 약정된 보험료를 받고**,
- **향후 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,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을 지급**



- **구체적인 보험료율 및 손실분담 방안은**,
 - **서울보증보험과 참여 금융회사들이 세부방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으로 알고 있음**

11. 위비 모바일 대출과의 차이점은?

- 위비 모바일 대출은 서울보증보험사가 부실에 따른 손실을 전부 부담하나,
 - 이번 상품은 금융회사와 손실을 분담하는 구조로서, 위비 대출에 비해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유인이 제고되는 효과
- 실제 위비 대출은 대출금리 6~9% 수준으로 긴급하게 소액 자금이 필요한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편이나,
 - 이번 상품의 경우 위비에 비해 보험료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함으로써 부실률이 높은 중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제도가 운용될 것으로 예상

* 위비모바일대출 : 평균 보험료율 2% 수준, 대출금리 6~9% 수준

* 이번 상품(예시) : 평균 보험료율 4% 수준, 대출금리 10% 내외 (은행 상품)
평균 보험료율 7~8% 수준, 대출금리 15% 내외 (저축은행 상품)

⇒ 손실분담구조, 보험료율 차이 등으로 위비에 비해 중·저신용자 까지 확대되는 적극적인 공급 확대와 리스크 관리 제고에 용이한 구조